



우리의 家章

# 青松沈氏宗報

發行人：沈明求  
編輯人：沈載烈(輔)  
서울市 中區 五壯洞 14-10  
電話：(02)2267-7857  
(02)2263-7897  
FAX：(02)2269-7755

非賣品 1996. 1. 3 등록번호 서울라 - 549호

홈페이지 | www.cheongsongsim.or.kr

## 十世祖 三巖 金海府使公 諱 光憲 (휘: 광헌) 行蹟



▷ 敬慕齋 光州광역시 광산구 동호동 본촌 206-5

公은 靑松인으로 휘(諱)는 광헌(光憲) 字는 언장(彦章)이요, 호는 삼암(三巖)이다. 공의 가장(家狀)을 약술(略述)하면 청송심씨의 시조는 고려문림랑 위위시승(高麗文林郎 衛尉寺丞) 휘 홍부(洪孚)이며, 四世祖는 러말 문하시중(麗末 門下侍中)과 선초 좌의정(鮮初 左議政)을 역임하고 청성백(靑城伯)에 봉작(封爵)된 휘 덕부(德符)이며, 五世祖는 인수부윤(仁壽府尹)을 역임한 휘 징(澄)이고, 경기감사를 역임한 후 귀양주(歸楊州)하여 정자(亭子)를 짓고, 자호(自號)를 망세정(忘世亭)이라 하며, 은둔(隱遁)했던 휘 선(璿)은 공의 증조이며, 해주목사(海州牧使)를 역임한 안지(安智)는 祖이고 기묘사화(己卯

士禍)에 연루(連累)되어 철산(鐵山)으로 유배(流配)된 후 나주로 이거(移居)한 기묘명헌(己卯名賢) 휘 풍(豐)은 그의 考이다. 문헌(文獻)의 실전(失傳)으로 생년이 전하지 않으나 여러 기록(記錄)들을 참고해 보면 공은 1541년~2년으로 추정된다. 公은 名家의 출신으로 총명절인(聰明絶人)하고 임사(臨事)에 충직(忠直)하였다. 벼슬은 훈련주부(訓練主簿)였으나 임진난(壬辰亂)에 종사(宗社)가 거의 폐허(廢墟)가 되기 전부터 공께서는 일찍이 국가변방(國家邊方)에 방위(防衛)가 허술한 틈을 타서 왜적(倭敵)이 침입할 날이 있을 것을 예견(豫見)하고 유비무환(有備無患)의 마음을 굳게 다짐하며 유사시에는 싸우다가 죽어 말가죽에 덮여 오는 시신(屍身)이 되어야겠다는 것이 그의 포부(抱負)였기에 작은 벼슬을 사양(辭讓)하지 않고 주부라는 벼슬에서 자기의 소임에 정성을 다하였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50이 지난 노장(老將)으로 정예수백(精銳數百)을

모병(募兵) 충무공 이순신(李舜臣) 막하(幕下)에 들어가 옥포전(玉浦戰)에서 적선(敵船)을 격파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고성 명월포(固城明月浦)로 가서 전라도 도사(都事) 최철견(崔鐵堅)과 힘을 합쳐 방어진(防禦陣)을 구축하고 적과 싸우다가 노량전(露梁戰)에 참전하여 패주적병(敗走敵兵)들을 사천(泗川)까지 추격한 후 적선 9척(隻)을 격파하였고 이어 한산도(閑山島) 안골포(安骨浦) 해전에서 많은 전공을 세웠다. 그 후 공은 분진(分陣)을 이끌고 강릉전(江陵戰)에 참전하게 되는데 이때 명장 송대빈(宋大贇)을 구하니 왜적 또한 쓰러져 죽은 자가 헤아릴 수 없었다. 이 전황(戰況)에 대하여 명장 송대빈이 조정에 주청해 말하기를 만일 沈장군이 아니었다면 거의 적의 칼날에 죽음을 면치 못했으리라 하니 선조(宣祖)께서 공의 전공을 가상히 여겨 특제 김해부사(特除 金海府使)하고 선무원종공신(宣武原從功臣)에 훈봉(勳封)하였다.

배(配)는 光山金氏 유장(有章)의 女로 화룡일자(化龍一子)를 두시었다. 삼강록(三綱錄), 이순신동의록(李舜臣同義錄), 광주 전남 충의사록(忠義士錄), 나주군지, 광산군지 등에 사재(事載)되었으며 묘는 나주 북장산(羅州北獐山) 현 광주광역시 광산구 동호동 본촌후 금부동(金富洞) 임좌(壬坐)에 모셔져 있다. 시제는 유택이나 경모재(敬慕齋)에서 매년 음력 10월 10일에 모시고 있으며, 동호사(東湖祠)에도 모시고 제사를 지내고 있다. < 끝 >

### 大同世譜 (庚辰譜) 申請案內



2002년도에 발간·배포한 대동세보(족보)를 아직까지 모시지 못한 집안에서는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동세보 : 전 12권(수권1권, 자손록 10권, 색인1권)과CD롬 (대동세보 전 내용과시조 ~ 4세조 산소 동영상을 수록하였으며 모든 한자에 음 표기함)  
○보급가격 : 22만원(CD롬 포함) CD롬 별도 구입시 : 20,000원/수권 별도 구입시 : 40,000원  
○송금구좌 : 농협 084-01-179314 심명구  
※ 대금을 송금하신 후 대중회( 02-2267-7857, 팩스 : 02-2269-7755)에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면 즉시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 대동세보 편집자료 제출시 족보예약금을 납부하고 아직 잔금을 내지 않아 받아보지 못한 분들은 '청송심씨대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명단이 게재되어 있으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책자 강매』주의

대중회를 사칭하면서 책자구입을 강요하는 전화가 많습니다. 책자를 보내오면 대금을 송금하지 말고 즉시 반송하시기 바라며, 다른 분들에게도 이러한 사실을 알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중회에서는 대동세보(경진보 : 22만원)와 대동세보 수권속편(10만원) 이 외는 보급하는 책자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朝鮮後期 天才 畫家

현재(玄齋) 심사정(沈師正) 평전(評傳) ②



▷ 파고섬매도

▷ 연지쌍압

공(公)은 또 재산에서 부자였는데 한결 같이 검소하게 줄이는 것으로 스스로 지켜 평화로운 시대에 사치하는 것을 숭상하듯이 하지 않고 항상 담담했으니 능히 대대로 내려온 가업을 지킬만했다고 말할 수 있었다. 공에게 한 딸이 있는데 군기첨정(軍器僉正) 심안인에게 시집가서 네 아들을 낳았으니 담(淡)은 무공랑(務功郎, 정7품)으로 행복부참봉(行北部參奉)이고 나머지는 어리다. 두 아들도 있으니 맏이가 분(枋)이다. 중추 하우명(河友明)의 딸을 맞아들였으나 자식 없이 죽으니 공보다 4년 앞섰다. 다음이 강(扛)인데 연안부사 안의(安宜)의 딸을 맞아들여 두 딸을 낳았으나 모두 어리다.

과원위가 부자였었고 1녀 2남을 두었는데 장녀가 맏이로 심안인에게 출가해서 네 아들을 낳았으며 두 아들 중 장남은 자식 없이 먼저 죽었다고 했다. 둘째 아들마저 어린 딸 둘밖에 없었다면 친손과 외손을 구별하지 않고 재산을 분배 상속하던 조선전기 상황에서 그 많은 재산의 상속이 맏딸인 심안인 처에게 기울었을 것은 자명한 이치다. 이런 재력과 인맥을 바탕으로 권문으로 상승하려면 새로 떠오르는 권문세가와의 혼맥을 통해 동반상승하는 길이 가장 빠르다.

그래서 경상우도 병마절도사라는 무반직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심안인은 그의 장자인 심담(沈淡, ?~1504)을 세조 왕위 찬탈의 원훈인 회산군(懷山君) 홍윤성(洪允成, 1425~1475)의 딸에게 장가보낸다. 홍윤성은 세

조의 손발이 되어 왕위 찬탈의 선봉에 섰던 인물로 성격이 포악하여 세조조차 제어하기 힘들어했던 권신이었다. 沈安仁의 차자인 심빈(沈濱, 1455~1502)도 세조 찬탈 이후에 대사성을 지낸 서강(徐岡, ?~1461)의 사위가 되지만 서강이 불교를 반박하다 세조의 비위를 건드려 사사되자 큰 덕을 보지는 못한다.

그러나 심빈의 장자인 안악군수 심광문(심광문, 1476~1529)은 정국공신(靖國功臣)인 능천군(綾川君) 구수영(具壽永, 1456~1523)의 5남 5녀 중 둘째 사위가 되어 당세 최고 권문세가의 일원이 된다. 구수영은 세조 공신으로 영의정을 지낸 능성부원군 구치관(具致寬, 1406~1470)의 조카로 12세에 세종의 막내왕자인 영웅대군(永膺大君) 이엄(李瑑, 1424~1467)의 정실소생 무남독녀 외딸을 길안현주(吉安縣主, 1457~1519)의 배필로 뽑힌 인물이다.

영웅대군은 세종의 만년 사랑을 독차지하여 세종이 제일 좋고 큰집을 지어주고 제일 많은 재산을 나눠주어 국 중 제일 갑부였다. 더구나 수양대군의 왕위찬탈에 적극 협조해서 그 과정에서 적몰된 안평대군이나 금성대군 등 형들의 탐나는 재산을 차지함으로써 더욱 거부(巨富)를 이루고 있었다. 그런데 정실 자식은 오직 길안현주 한 사람뿐이고 다만 비첩(婢妾) 소생의 청풍부정(淸風副正) 원(源)을 비롯한 1남 2녀가 있었다. 이 엄청난 재산은 거의 길안현주가 상속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구서영이 5남 5녀에게 균등하게 나누어주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이에 沈光門의 재력은 만만치 않았을 터인데 심광문에게는 남녀간에 자식이 없었다. 그래서 아우인 둔암(鈍菴) 심광언(沈光彦, 1490~1568)의 네 아들 중 둘째인 일재(逸齋) 심호(沈鎬, 1518~1589)를 양자로 맞아들인다.

심광언은 벼슬이 좌참찬(左參贊, 정2품)에까지 올랐었는데 생원 진사 양시에 합격하고 문과에서 장원급제한 인재로 기묘사화(1519)와 을사사화(1545) 등 사화가 빈발하던 이 시기에 명절(名節)을 올바르게 지켰다는 평판을 받는 인물이었다.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훈척가문과의 중첩한 혼인관계를 맺고 있는 속에서 명분과 절의를 지켜내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79세의 장수를 누리면서 이를 지켜나갔다니 보통 능란한 솜씨가 아니었던 가 보다.

더구나 그의 장자인 조방정(趙邦禎)의 친형이 당시 대표적인 권간(權奸: 권세를 가진 간신)의 하나로 지탄받던 조방언(趙邦彦, 1469~1532)이었음에라! 조방언은 권신 김안로(金安老, 1481~1537)가 집권하면 그에 빌붙어 예조참판을 지내고, 기묘사화를 일으켰던 간신 심정(沈貞, 1471~1531)이 집권하면 그에 빌붙어 예조참

판을 지내다가 끝내 심정이 사사되면서 그의 당여로 몰려 사사된 인물이었다. 그런데 조방언은 기묘명현(己卯名賢)의 대표인 정암(靜庵) 조광조(趙光祖, 1482~1519)의 6촌형이었다.

이런 복잡한 인맥 속에서 보수와 혁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 직면하자 심광언은 가문의 재산과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느 편에도 선봉에 나서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 그래서 네 아들이 높은 벼슬에 나가 정치싸움에 끼기보다는 학문을 즐기며 집안을 지켜주기를 바랐던 모양이다. 이에 형 심광문에 게 양자간 둘째 아들 심호는 진사 급제 후에 은거하여 벼슬을 사양한 채 학문에만 몰두하니 세상에서는 서호(西湖) 처사라 부르며 존경하였다. 그의 장인인 심정, 이항(李沆)과 함께 삼간(三奸)으로 지탄받던 좌찬성 김극렴(金克楅, 1472~1531)의 둘째 아들인 대사헌 김홍윤(金弘胤, 1499~1569)이었다.

그런데 기묘사화와 을사사화를 거치면서 사회는 크게 변화하기 시작했다. 성리학적인 이상정치를 꿈꾸다 그때마다. 훈구세력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사화(士禍)를 당해 온 신진 사림(士林)들이 철저한 자기반성에 돌입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국시(國是)로 천명한 성리학 이념의 실천이 번번이 좌절당하는 이유를 지지기반의 미약에서 찾을 수 있었다. 백성들이 성리학 이념을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불교적인 사고방식과 생활 습속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성리학적인 이상정치를 구현하려 했으니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그 원인을 규명해 들어가니 백성들이 성리학 이념에 어두운 것은 성리학 이념의 학습과 실천을 책임지고 있는 사림 즉 성리학 이념의 주도집단인 자신들이 이를 백성들에게 가르치지 않은 탓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왜 가르치지 않았을까”라는 자기반성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성리학이념에 무지하다는 뜻밖의 사실을 발견하고 엄청난 충격에 빠진다. 결국 뜻 있는 선비들은 사방에서 성리학 연구에 몰두하게 되고 그 결과 도처에서 성리학을 제대로 익힌 큰선비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었다.

개성의 화담(花潭) 서경덕(徐敬德, 1489~1546), 안동의 퇴계(退溪) 이황(李滉, 1501~1570), 삼가(三嘉)의 남명(南溟) 조식(曹植, 1501~1572), 장성(長城)의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 1510~1560) 등이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그 중에 퇴계의 주자성리학 이해가 가장 깊어 주자의 이기이원론(理氣二元論)을 완벽하게 이해해 낸다. 이를 바탕으로 그 다음 세대인 울곡(栗谷) 이이(李珣, 1536~1584)가 나와서 이기일원론(理氣一元論)으로 심화 발전시켜 놓는다.

< 다음호에 계속... >

대동세보 수권속편(외 4종) 신청안내

구분	페이지	가격	신청부수
1. 대동세보 수권(속편)	1,134	50,000원	( )권
2. 청송심씨세고선(한시집)	448	30,000원	( )권
3. 증보축쇄판(1-50회)	400	20,000원	( )권
4. 제향흥기(휴대용)	30	3,000원	( )권
5. 종사수첩(휴대용)	120	3,000원	( )권
6. 뱃지		1,000원	( )개

▶ 1, 2, 3 세권을 일시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4, 5, 6 세가지 물품을 무상으로 드립니다.

\* 수령인 주소 및 송금내역

과목	이름	집전화	휴대폰
주소	우편번호		
송금일자	송금인	금액	송금은행 ( )은행 ( )지점



수권속편 질 단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 1질 단위는 발송비 없음.
- ◆ 질단위 외에는 발송비 3,000원을 대금에 합산하여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 주소는 번지와 동·호수까지 자세하게 기재, 집전화·휴대전화를 꼭 기재요함.
- ◆ 송금인이 본인이 아니면 반드시 송금인의 이름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100-310 서울 중구 오장동 14-10(찬경회관)  
TEL: (02)2267-7857, 2263-7897 FAX: (02)2269-7755  
\* 송금구좌 농협 084-01-179314(심명구)

기녀 일타홍(妓女一朶紅)의 지혜 ②

- ① 일타홍, 심희수와와의 첫만남
- ② 심총각이 잠에서 깨어나다.
- ③ 띠꺼머리 심총각이 장가를 가다
- ④ 심희수가 과거보러 나갔는데
- ⑤ 다시 일타홍과의 이별

② 심총각이 잠에서 깨어나다.

심총각은 반색을 하며

「어때 어머니의 허락을 받았는가?」

「네 마님의 허락을 받았사옵습니다」

「그래! 그러면 오늘부터 날마다 너와 함께 지낼 수 있겠지? 심총각은 염불에는 마음이 없고 잣밥에만 마음이 있는지 함께 사는 것부터 따지고 나선다.

「도련님은 정말로 글공부를 할 결심은 하셨사옵니까?」

「물론이지 장부 일언이 중천금이라 하지 않았던가! 일타홍은 그 대답을 듣고 싶었다. 비록 더벅머리에 총각이기는 하나 남아의 기백과 긍지는 살아있는 듯 보였기 때문이다. 일타홍은 짐짓 정색을 하고

「소첩이 도련님을 모시게된 이상 잠자리를 함께 하는 것은 당연하겠사옵나 그리 하는데도 금도가 있는 법입니다」

「금도라고 하면 무엇을 말하느냐?」

「서방님은 공부를 하시기 위해서라도 매일 잠자리를 함께 하시면 아니 되웁니다」

「그러면 어찌 한다는 말이나?」

「도련님이 책을 한 권 떼시면 그 날은 밤을 함께 하겠사옵습니다. 한 달에 한 권을 떼시면 그 날 하루 밤만 함께 하게 될 것이며, 매일 한 권씩 떼시면 매일 밤을 함께 지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심희수는 기가 막힌다는 어투로 말하였다

「공부는 열심히 할 것이니 삼일에 하루씩이라도 함께 할 수 없겠느냐?」 그러나 일타홍은 냉혹하게 거절하였다.

「함께 지내고 싶으면 삼일에 책 한 권씩은 꼭 떼야 하겠는걸!」 이렇게 단언하듯 말하며 심총각은 내일부터라도 당장 공부를 해야겠다고 결심을 하였다. 이것만이 그녀를 가질 수 있는 좋은 방책이라 생각하였다. 그 날밤은 목메어 그리든 그 여인과 긴긴밤을 함께 보낸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다음날 아침, 글공부를 어디서 할 것인지를 논의하게

되었다. 일타홍이 말했다.

「노수신(盧守愼)영감은 일찍이 시강원사서(侍講院司書)를 지내시고 퇴계(退溪) 선생과도 막역한 사이요 인격도 고매할 뿐 아니라 학문에 있어서도 당대에 대학자(大學者)라고 들었습니다!」라고 하였다.

「노수신 영감이시라면 우리 아버님과도 동문수학하신 터라 거절하지는 않으실 게다!」 이리하여 일타홍이 추천한대로 노수신을 스승으로 메시고 다시 공부부를 시작하게 되었다.

노수신 영감은 심총각을 반갑게 맞이하였다.



▷ 조선후기의 화가 “蕙園 申潤福 그림”

「그렇잖아도 자네가 공부를 전폐하고 주색에 빠져 돌아다니는 소문이 있어 매우 걱정하였더니 이렇게 자네가 나를 찾아와 주니 기쁘기 한량없네, 지금부터라도 공부를 열심히 하여 가문의 영광을 더욱 빛나도록 하게나!」 심희수는 그 날부터 공부를 시작하였고 책 한 권씩은 해야 집에 오기로 하여 삼일에 한 권씩은 꼭 떼고 부지런히 집에 돌아왔다. 그녀와 함께 지내기 위해서도 꼭 그래야 하고 그만큼 그는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었다. 배운 책을 가지고 반드시 강을 받아 보고 통과해야 잠자리를 함께 하곤 하였다. 그래도 심총각은 실망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만 하였다. 다시는 공부를 할 것 같지 않던 망나니 한량이 이렇게까지 변한 것은 모두가 일타홍의 출중한 계략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어느 때는 갑자기 그녀의 생각에 한밤중에 집으로 돌아왔으나 끝내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어느덧 공부를 다시 시작 한지도二년이 지났다. 그는 머리가 비상하고 총명해서 논어, 맹자, 역경, 춘추(論語 孟子 易經과 春秋) 등에 이르기까지 모두 통달하였다. 한번은 소식(蘇軾)이 없다다가 보름 만에야 책을 한 권 들고 들어왔다.

「시경(詩經)을 보름이나 걸려서 오늘에야 겨우 다 배

웠네, 그동안 집생각이 간절하여 한밤중이지만 이렇게 달려왔네!」 일타홍은 책을 받아들고

「孔子님이 삼천독(三千讀)을 하셨다는 시경을 도련님은 보름동안에 다 배우셨다니 정말 장하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을 받겠습니다!」 심희수는 눈을 감은 채 처음부터 끝까지 한자도 빠지 않고 줄줄이 외우는 것이었다. 일타홍도 지극히 놀랐다.

「도련님 장하십니다. 도련님의 머리가 이처럼 총명하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일타홍은 칭찬을 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사내 대장부가 한번 결심하면 무엇인들 못하겠느냐 나는 너 때문에 학문에 자신을 갖게 되었고 세상사는 재미를 알게 해주었으니 네가 태어난 가문은 비록 천하지만 부덕이 높고 행실이 정숙한 점으로 보아서 너야말로 요조숙녀와 다를 것이 무엇이겠느냐!」 하였다.

이날 밤 두 사람은 깊은 사랑에 빠졌다. 일타홍은 타락한 한 남자를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것에 큰 기쁨을 느끼며 사랑하는 서방님 품안에서 마냥 행복하기만 하였다.

심희수는 일타홍과의 사랑에 취해 詩 한 수를 지으니

집창가 농탕질로 밤을 지새네

아양겹고 수줍음 곱기도 해라

너도 날 사랑하는나 속삭였드니

허튼 머리 만지며 고개 끝덕여

(심영구의 “눈물로 베게적신 사연 중에서”)

다음날 일타홍은 어떤 문제에 부닥쳐 골몰하고 있었다. 이대로 간다면 도련님은 1~2년 내에 급제하는 것은 틀림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 서방님은 장가를 가져야한다. 내가 아무리 함께 산다고는 하나 이 사회는 기녀와는 정식 혼인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처녀장가를 들어야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지금만 같이 한평생을 지낼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러나 기생신분이었던 그는 平生을 함께 해도 소실이지 정실은 될 수 없는 몸이었다. 그러니 서방님의 장래를 위해서는 처녀장가를 들어야하고 일타홍은 그일 까지도 맡아야하는 알곳은 입장이었다. 생각하면 사랑하는 남을 어찌 다른 여자에게 나눠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이것까지도 내가 해야하는 일이 아니던가. 일타홍은 이때처럼 기생이라는 신분이 야속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도련님이 처녀장가를 들고 과거에 장원만 하신다면 나는 이 집에서 물러날 것이라 결심까지 하게 되었다. < 다음호에 계속... >

알림  
派(地域)宗會旗 製作 申請

2006년부터 우리門中의 家章을 변경하여 사용함에 따라 각 派宗會 또는 地域宗會에서 보유하고 있는 宗회기를 교체하여야 하는바, 대종회에서 일괄 제작하여 보내달라는 요청이 있어 소요량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 ▶ 기존의 宗회기를 교체하거나
- ▶ 宗會旗를 새로 제작하고자 하는 派(地域)宗會에서는 다음과 같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靑松沈氏大宗會(02-2267-7857)

宗會名	靑松沈氏	宗會
住所		
電話番號	宅:	- -
	휴대폰:	- -
신청내용	宗회기(깃대 포함):	180,000원
	宗회기(깃대 제외):	150,000원

종원님들의 기고(寄稿)를 환영합니다.

靑松報는 청송심씨의 소식입니다. 각 계파, 지역 종친회 정기총회 및 행사, 선조 유적, 기행문, 시, 수필, 합격, 승진, 체험 등 알리고 싶은 소식을 기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낼곳 : (우) 100-310  
서울 중구 오장동 14-10  
靑松심씨대종회 문화부  
TEL : 02-2267-7857, 02-2263-7897  
FAX : 02-2269-7755

## 매헌 윤봉길 의사(梅軒 尹奉吉 義士) ②

- ① 故國山川을 뒤로하고
- ② 생애 그 날을 위하여
- ③ 金九와의 마지막 조찬

### ② 생애 그 날을 위하여

날은 하루하루 다가온다. 그간 천장절 행사 준비에 바쁜 홍구공원을 몇 차례나 답사하였다. 그리고 고관들이 올라갈 단상까지도 확인하였다. 그리고 도시락, 물통으로 변조한 폭탄으로 조작과 투척하는 방법도 익히고 일장기도 다 준비되었다.

윤 의사는 마지막 날인 4월 28일 김구주석과 함께 밤을 보내기로 하고 한 여관을 찾아 들어갔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시계도 서로 교환하고 남은 돈은 모두 김구주석에게 주었다. 이제 그동안의 일은 오늘로 마감하고 내일은 새로운 일을 할 것이라 생각하니 만감이 교차하였다. 아무리 잠을 자려해도 잠이 잘 오지 않는다. 그간에 모든 것을 잊고 지냈던 고향의 부모님, 그리고 내가 남기고 떠난 처자식, 친구들, 그리고 농촌운동, 계몽운동을 하던 그런 일들이 새록새록 주마등처럼 스쳐 간다. 그러나 윤 의사는 이 자리에서 집을 나올 때 단지 안에 써두었던 “대장부가 집을 나오면 살아서 돌아오지 않는다.”(丈夫出家不生還=(장부출가불생환))를 머리에 떠올리고 이제부터는 집 생각은 일체 하지 않기로 하였다. 시간은 가고 거사 날 아침이 밝았다.

윤 의사는 마지막으로 金九주석님과 아침 식사를 함께 하고 길을 나섰다. 이제 헤어지는 길목에서 김주석님께 마지막 인사를 하였다.「백범선생님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온힘을 다 해주십시오 저는 이제 여기에서 헤어져야겠습니다.」그리고 윤 의사는 택시를 타고 떠나버렸다. 마음이 설레었다. 그동안 그 수많은 시련과 고해는 마치 오늘을 만들기 위한 한 과정인 것만 같이 생각되었다.

공원 앞에서 차를 내려 천천히 앞만 바라보고 걸어갔다. 물통은 어깨에 지고 한 손에는 도시락을 또 한 손에는 일장기를 들고 유유히 공원 안으로 들어갔다. 군중이 입주의 여지없이 넓은 공원에 꽂 들어차 있다. 어렵게 정문을 통과한 윤 의사는 단상좌측 뒤편으로 자리를 잡고 단상 위만 주시하였다. 이미 관병식이 끝나고 軍民 합동 축하식이 시작되었다. 단상에는 무라이 총영사, 우에다 사단장, 시라가와 군사령관, 등의 순서로 도열해 있었고 군중은 앞, 뒤, 옆으로 꽂 차있다. 식순에 따라 일동은 기미가요(일본의 국가)를 합창하고 있을 때였다. 이때다 하고 윤 의사는 메고 있던 수통을 벗어 들고 단상 쪽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시라가와 대장쪽을 향하여 수류탄을 힘있게 던졌다. 수류탄은 단상 바닥에 떨어지더니 때굴 때굴 굴러 시라가와 대장의 발아래서 멈췄다. 영문을 몰라 잠시 주춤하고 있는 사이에 연기가 나는 듯 하더니 이내 광하는 소리와 함께 단상은 풍비박산이 된 것이다. 정확하게 정조준 된 것이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윤 의사는 해냈다는 쾌감에 자기도 모르게 대한독립만세를 목이 터져라 소리치고 있었다. 그리고 이내 관헌에게 체포되어 채이고 밧피고 총 개머리로 내려쳐 여기서 이미 사경에 빠지고 말았다. 그렇게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되었는데 가혹한 고문은 밤과 낮이 따로 없이 계속되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한국은 물론 중국과 일본까지도 여론들이 비등하였다.

이 기사를 제일 먼저 보도한 것은「獨立評論」이었다.



- 의거에 사용되었던 물통형 폭탄과 자결용 도시락형 모형폭탄 -

그 내용을 대강 기술하자면「광 하는 소리가 났으니 이때가 바로 11시 40분이다. 가와바다 단장(거류민단장이며 상업회의소 소장 요네스코와 함께 중국의 침략을 위해 방화와 살인을 수도 없이 자행 한 자)은 죽고 침략총사령관 시라가와(白川)대장은 204개의 파편을 맞고 쓰러졌으며(28일만에 사망) 제3함대 사령관 노무라 중장은 눈알이 튀어 나와 한눈이 실명되었고 제9사단장 우에다 중장은 다리하나를 절단하였다. 그 외에도 많은 사람이 부상을 당하였다.」

한편 日人들은 이 일을 중국인들이 저질른 일이라고 주장하며 중국인을 탄압할 전화위복으로 삼고자 하였다. 이에 김구주석은「通信社」에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 사건은 우리가 독립운동으로 의거한 것임을 밝히고 범인을 잡겠다는 구실로 조국과 중국에 무고한 백성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한 조치였다.

한편 日人들은 승승장구 한국에서 만주로 또 중국본토로 들어가 상해까지 점령하고 의기가 충천하던 때에 큰 벼락을 당했으니 모든 일들이 주춤해 졌음은 물론 일대 수치가 아닐 수 없었다.

중국에서도 이 사건은 큰 쾌거였다. 계속 패하여 쫓기만하던 중국은, 4억이나 되는 중화민족도 못하는 일을 조선사람이 했다는데 대해 아주 고마워하는 입장이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20여일 간을 숨어 지낼 수밖에 없던 김구, 엄항섭, 안공근은 중국인들의 철저한 비호로 무사히 상해를 탈출 할 수 있었다. 이 때는 일본이 철저하게 당한 위신을 회복하고자 김구를 체포하기 위하여 60만 원이란 거금의 현상금을 걸어놓고 있었을 때라 그들이 더욱 고맙게 생각되는 것이었다. 이 사건은 일본인 몇 명이 죽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한민족의 독립에 대한 기세가 한껏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중국 민에게도 배일 사상에 기름을 부어주었고 세계 열강들은 무모한 세력균형을 깨려는 일본에 대하여 크게 반발하게 하는 효과가 생긴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일군은 중국과 서둘러 정전협정을 맺고 어렵게 점유한 상해에서 점차적으로 철군하겠다는 함의를 하기에 이르렀다.

홍구공원 폭발사건은 많은 국가와 정부가 일본의 동아시아에 대한 침략행위를 규탄했으며 이에 고무된 중국인들은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이나 독립운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한국과 임시정부와 김구주석이 있다는 것을 만방에 알리는 계기가 된 것이다.

윤 의사는 형법재판이 아닌 군사재판을 받았다. 이는 추락한 군의 위상을 회복하고 죽은 백천대장을 위하는 것도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재판은 극비리에 진행되었으나 가끔 취조 내용이 흘러나왔다.

심판관.「너는 아직 젊은 나이에 죽는 것이 아깝지 않은

## 沈영감 심민섭



가?

윤 의사「내가 홍구공원에 가서 답사할 때 녹지를 살펴보니 산 풀도 있고 죽은 풀도 있었다. 사람들의 생명도 그 풀과 무엇이 다른가. 나 하나의 생명으로 독립운동에 한 가닥 생기를 불어넣어 준다면 이 생명이 백 번을 죽는 다 한들 아까울 것이 있겠느냐. 가소로운 것은 나 같은 한 평민을 군사법정에 올려놓고 심판하니 이것은 나를 너무 높이 평가 해 주는 것일 뿐이다.」

11월 8일 윤 의사는 일본으로 압송하게 되어 상해를 떠나 3일만에 오사카 항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오사카는 특별 계엄령이 내려져 있었고 경찰과 헌병들은 지나는 길 골목골목을 물샷틈없이 경계하고 있는데 무엇이 그리 겁이 나는지 엄숙하고 긴장되어 있었다.

배가 몇자 장갑차 3대가 오사카 형무소로부터 나오고 윤 의사는 경호원에 둘러 쌓인 채 장갑차로 옮겨지었다. 옷은 지금도 거사 할 때 당시의 것으로 핏물에 바랜 채 검게 때가 끼어 있었고 얼굴은 너무도 창백해 보였으나 눈망울만은 예리하게 빛났다. 그리고 눈에는 강인한 의지와 기백이 흐르고 있었고 얼굴표정에는 공포의 그들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의 걸음걸이는 끌려가는 제수가 아니라 개선장군처럼 당당해 보였다.

윤 의사는 두 번째로 바뀌 탄 장갑차로 오사카 위수형 무소에 도착하였다. 여기가 마지막 재판을 받을 곳이다.

- 33 -

다음호에 계속...

# 宗 事 消 息

## 五世祖 安孝公 諱 溫(휘:온) 端午節祠

(6월 19일 端午)



▷ 수원시 팔달구 이의동



▷ 안효공종회 정기총회

初獻: 大平(溫陽公派孫 國會議員)

亞獻: 應璋(靖夷公派孫)

終獻: 胤燮(信川公派孫)

大祝: 光澤(溫陽公派孫)

執禮: 相稷(安孝公宗會 總務)

執事: 載澈 彦村 應植 讚秀

▶ 獻誠金

農協水原驛支店長: 500,000

奎澤(남가좌동): 100,000

鐵原宗會: 200,000

載善(공주종회): 100,000

남곡종회(정남면): 50,000

## 六世祖 恭肅公 配位 忌辰祭

6월 24일(음 5월10일)



▷ 파주시 월농면 영태리 재실

初獻: 仁輔(중손)

亞獻: 奎澤(남가좌동)

終獻: 仁燮(영태리)

大祝: 海燮(영태리)

執禮: 相稷(안효공종회총무)

執事: 載澈(서울) 忠澤

## 安孝公派宗會 2007年度 定期總會 開催

2007년 6월 19일(음 5월 5일) 오전 10시 30분 安孝公 할아버지의 端午절사를 봉행하였다. 지난 4월 대전서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국민중심당 大平 국회의원이 초헌관으로 헌작을 하였으며,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는 시청각용으로 文化財資料를 만들기 위하여 연구원과 기술진 7명이 출장하여 安孝公 端午節祠奉行(제관의 衣冠착용부터 모든 祭禮節次) 장면을 동영상으로 撮影하였다.

제향봉행을 마치고 11시 30분부터 안효공종회 2007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500여명의 종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먼저 斗燮 宗會長님의 인사의 말씀이 있었으며, 새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大平 國會議員의 인사에 이어 수원시 載德 國會議員의 열린당 탈당 경위와 앞으로의 개인적 활동계획에 대한

인사말이 있었다.

감사보고에 이어 相龍副會長으로부터 광고신도시 개발계획으로 인한 이의동의 토지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들었으며, 相稷總務께서 2006년도 결산보고, 200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이의 없이 만장일치 박수로 가결하였다.

차분한 분위기에서 정기총회는 종료하였으나, 불미스럽게도 山下宗人 중 개인보상문제로 사소한 언성이 있어 다른 종인들이 만류하였다. 이어서 준비된 도시락을 받아서 정자나무 그늘 아래에서 둘러앉아 도시락을 먹으며 술을 권하고 정담을 나누면서 모든 것이 안효공 할아버지의 음덕으로 믿고 또한 생각하면서 오늘의 행사를 끝맺었다.

-문화부-

## 심경철의인 추모비제막



3. 30일 유가족 대표로 분향하는 고 심경철의사자 부친 심재운씨

해양인으로서 처음으로 의사자로 확정인증을 받은 고(故) 심경철의 추모비를 순직선원위령탑 경내에 설치하고 10월 23일 오전 11시 제막식을 거행하였다.

고(故) 심경철 의사는 1998년 목포해양대학교를 졸업하고 2등 항해사로 필오션해운 소속 유조선 피하모니(5,500톤)호에 승선 중이던 2001년 1월 15일 오전 10시 경 선원 16명을 태우고 거제남여도 부근 바다를 향해하던 중 선수 중앙부에서 발생한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사고로 침몰하면서 순직하였다.

사고 발생당시 승선하고 있던 선원 중 4명은 현장에서 사망하고 12명은 선장의 지시에 따라 구명정을 내렸으

나 곧바로 화재로 소멸하고 구명복을 착용한 선원은 바다로 뛰어내렸으며, 고인은 자신의 라이프링을 건네주고 맨 몸으로 바다에 뛰어내려 수영하다가 차디찬 해수에 지쳐 결국 사망하게 되었고 2001년 9월 3일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에서 보건복지부로 부터 해양인으로서의 처음 의사자 확정 인정서를 받았다.

이에 故 심경철의사자의 모교인 목포해양대학교 총동창회에서는 해양인으로서 처음 의사자 인증을 받은 고인의 업적이 해양인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는 등 대불이 되고 해기선원에 대한 위상과 노동환경 및 인권을 개선해 나가며 우리사회의 귀감으로 삼고자 추모비 건립을 해상노련측에 제의하였고 해상노련은 순직선원 위령탑관리 8개 관련단체 관계자 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추모비를 건립하였다.

이날 추모비 제막식에서 목포해양대학교 총동창회 서춘식회장은 인사말에서 "의사자 선정과정에서 마음고생 많으셨던 유가족과 청년동맹회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고인의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은 해기선원에 대한 위상과 노동환경 및 인권을 개선해 나가는 데 소중한 시금석이 될 것이며 정의사회 구현의 귀감이 되어 영원히 빛날 위대한 동문으로 남을 것이다"라고 인사말을 하였다.

## 青松沈氏 萬重公派宗會 任員名單

- 會 長 .. 相學
- 副 會 長 .. 載豐 載義
- 監 事 .. 載權
- 事 務 局 長 .. 丁輔
- 幹 事 .. 起輔
- 理 事 .. 賢燮 昌輔 協燮 琬輔 永輔

### 지방순회 뿌리교육

2006년까지 23년간 실시해오던 청송에서의 하계수련대회는 해마다 참석인원이 감소함에 따라 교육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방을 순회하면서 뿌리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금년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4월 19일 정기총회에 보고한바 있습니다.

광주 금당산중회 심상팔 회장으로부터 광주에서 교육을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하여 7월 28일 예식장을 임대하여 광주·전남지역에 거주하는 종인들을 대상으로 제1회 지방순회 뿌리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였습니다.

#### ◇ 뿌리교육 실시 ◇

- 교육일시 : 2007. 7. 28(토) 10:00~16:00(5시간)
- 참석인원 : 150명(학생 16명, 성인 134명)
- 교육내용 및 강사
  - 뿌리교육 : 문화이사 심재열
  - 시청각 교육 : 총무이사 심중혁  
(CD롬 족보 검색, 대중회 홈페이지, 성씨의 고향)
  - 입학조 사적 : 곡성중회장 심우경
  - 예절교육 : 금당산중회 심재익



지방순회 뿌리교육장면



#### ◇ 참석인원 현황 ◇

- 관사공파 중회 : 18명(순천, 보성)
- 지성주사공파중회 : 20명(광주, 장성, 함평, 순천)
- 인수부윤공파 곡성중회 : 37명(광주, 곡성, 여수, 순천)
- 인수부윤공파 정랑공중회 : 39명(광주, 담양, 군산)
- 안효공파 사복시정공중회 : 3명(곡성)
- 안효공파 금당산중회 : 27명(광주)
- 안효공파 선무공신공중회 : 6명(광주, 장성)

#### ◇ 뿌리교육 후기 ◇

· 이번 지방순회 뿌리교육에 참석한 분들은 대중회에서 지방을 찾아와서 교육을 실시한데 대하여 만족감을 표시

하였으며, 특히 영상교육에 대하여는 대단히 유익하였다는 반응이었습니다.

- 그러나 학생들에게 뿌리교육을 하기 위하여 방학기간 중에 교육일정을 정하였던 것이나 학생들의 참여가 저조했던 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 다음 교육은 겨울방학 중에 광역시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오니 대중회에 신청해 주시고,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주 청광회에서 대중회 출장자의 식대 및 숙박비를 부담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율곡의 천도(天道)



대중회 이사  
沈 星 求

1558년(23세) 별시(別試)에서 장원 급제할 때 제출했던 답안 내용을 소개한자(자연철학에 관한 율곡의 근본사상)

#### 문제

천도(天道)는 알기도 어렵고 말하기도 어려운 것이다.

① 해와 달이 하늘에 달리어 하루 낮 하루 밤을 운행하는데 더디고 빠름이 있는 것은 누가 그렇게 시키는 것인가?

② 혹 해와 달이 한꺼번에 나와서 일식과 월식이 있는 것은 어찌서 인가?

③ 오성(五星)이 씨(緯)가 되고 중성(衆星-28宿)이 날(經)이 되는 것을 상세히 말할 수 있는가?

④ 경성(景星)은 어떤 때에 나타나며 혜개(慧孛-혜성)는 또한 시대에 보이는가?

#### 대답

① 상천(上天)의 일은 무성무취(無聲無臭)하여 그 이(理)는 지극히 은미하나 상(象)은 지극히 현저하니 이 설(說)을 이하는 사람이라야 더불어 천도를 논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집사(執事) 선생께서 지극히 은미하고 지극히 현저한 도로써 발책(發策)하여 문목(問目)을 삼아서 격물궁리(格物窮理)의 설을 듣고자하니, 이는 진실로 학문이 천인의 도를 끝까지 연구한 사람이 아니라면 어찌 이를 의논하는데 참여하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평소 선각자들에게서 들은 것을 가지고 밝으신 물음에 萬分の 一이나마 대답할까 합니다.

생각하건대 만화(萬化)의 근본은 하나의 음양일 뿐입니다. 이 기(氣)가 동하면 양이 되고 정하면 음이 되니, 한번 동하고 한번 정하는 것은 기(氣)이고, 동하게 하고 정하게 하는 것은 이(理)입니다.

천지의 사이에 형상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더러는 오행의 정기가 모여된 것도 있고, 천지의 기(乘氣)를

받은 것도 있고, 음양의 서로 격돌하는 데서 생긴 것도 있고 음양 두 기운이 발산하는데서 생긴 것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월성신이 하늘에 걸려 있는 것이나 비·눈·서리·이슬이 땅에 내리는 것이나 바람과 구름이 일어나는 것이나 우레와 번개가 발작하는 것이 모두 기(氣)가 아닌 것이 없으나, 이것들이 하늘에 걸리고 땅에 내리고 바람과 구름이 일어나고 우레와 번개가 발작하는 까닭은 이(理)가 아님이 없습니다.

이기(二氣- 음.양)가 진실로 잘 조화되면 저 하늘에 걸려 있는 일월이 선도를 잃지 않고 땅에 내리는 비나 눈이 반드시 제 철에 맞으며 바람·구름·우레·번개가 모두 화기 속에 둘러 있게되는 것이니 이는 理의 정상(正當)입니다.

② 만일 이기가 조화되지 않으면 일월의 운행이 그 전도를 잃고 발휘함이 제 철을 잃으며 바람·구름·우레·번개가 모두 어그러진 기운에서 나오는 것이니 이는 이(理)의 변괴(變怪)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천지의 마음이니, 사람의 마음이 바르면 천지의 마음도 바르고, 사람의 기가 순하면 천지의 기도 순해집니다. 그러니 이의 정상함과 변괴를 어찌 한결 같이 천도의 탓으로만 돌려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아뢰입니다.

자연의 원기가 처음 개벽(開闢) 함으로부터 해와 달이 서로 돌며 우주를 밝혔는데, 해는 태양(太陽)의 정기이고 달은 태음(太陰)의 정기입니다.

양의 정기는 빨리 운행하기 때문에 하루에 하늘을 한 바퀴 돌고, 음의 정기는 더디게 운행하기 때문에 하루 밤 사이에 하늘을 한 바퀴 돌지 못합니다. 양이 빠르고 음이 더딘 것은 기이지만 음이 더디고 양의 빠른 소이는 理입니다. 저는 누가 그것을 빠르고 더디게 하는 지는 모르겠으나 자연히 그러한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해는 임금의 상이요 달은 신하의 상이니 운행하는 길이 같고 만나는 도수가 같기 때문에 달이 해를 가려 일식이 되고, 해가 달을 가려 월식이 됩니다. 해와 달이 같은 전도에서 만나되 달의 기운이 미약하면 일식의 변

고가 생기지 않지만, 이 해가 미약하면 음기가 성하고 양기가 미약하여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능멸하고 윗사람은 점점 쇠퇴하게 되니, 이는 신하가 임금을 거역하는 상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두 개의 해가 함께 나오고 두 개의 달이 함께 나타나서 비상(非常)한 변괴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이는 모두 어그러진 기운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님이 없습니다.

제가 일찍이 이러한 사실을 옛 전적에서 찾아보니, 재이(災異)가 일어난 경우는 덕이 닦여진 치세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고 일식·월식의 변괴가 모두 말세의 난정(亂政) 때 생겼으니 이에서 천의와 인도가 서로 통하는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저 하늘이 창창(蒼蒼)한 것은 기가 쌓인 것일 뿐 본래의 빛깔이 아니니, 만약 별들이 찬란하게 기강(紀綱)이 되지 않았다면 천기(天機)의 운행은 아마도 구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③ 저 소소(昭昭)하고 경경(耿耿)한 것이 각기 전차(전차-별자리, 운행하는 길)가 있는 것은 어찌서입니까? 모두 원기(元氣)의 운행이 아님이 없습니다.

중성(衆聖)은 하늘의 운행에 따라 운행하고 제 스스로 운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經)이 하고 오성(五星)은 때에 따라 각각 나타나고 하늘의 운행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위(緯)라고 합니다.

하나는 일정한 전차가 있고 하나는 일정한 전도가 없으나 그것을 대체로 말하면 하늘이 날이 되고 오성이 씨가 되지만, 그 자세함을 말하고자 한다면 한 장의 종이로 써 다할 수 있는 바가 아님이니다.

④ 상서로운 별도 항상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변괴의 별도 항상 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성(景星-덕성 서성)은 반드시 소대(昭代-태평성세)에 나타났고 요혜(妖慧)는 반드시 쇠세(衰世)에 나타났습니다. 우순(虞舜)이 문명하였을 때 경성이 나타났고 춘추 때는 혼란하였을 때 혜개(慧孛)가 생겨났습니다. 순(舜) 같은 세대에도 한 번만이 아니고 춘추 때처럼 어지러운 시대도 한 번뿐만이 아니었으니 어찌 일일이 들어 차례로 진술하겠습니까?

< 다음호에 계속... >

# 강좌

## ■심갑보(三益 THK 株) 부회장의 현장경영학■



부회장 심갑보

### 유비무환(有備無患)

요즘 서울의 유명종합병원에는 종합건강진단을 받으려고 신청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신청 후 보통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고 한다. 평상시에는 모르고 있던 건강상의 이상 징후를 사전에 발견하여 갑자기 닥칠지 모르는 우환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다.

기업도 건강상태를 알아보고 만일 증병이 발견될 경우에는 이를 치유하고 활로를 찾기 위해 국내외의 컨설팅 업체나 전문기관의 진단을 받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지난 날 L그룹과 D그룹이 외국의 저명한 컨설팅 회사의 경영진단을 받아 뼈아픈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기업의 경영체제를 과감하게 변혁하여 IMF 경제위기를 모면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존속하여 발전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도 초기산업사회와 후기산업사회를 거쳐 정보화 사회로 진입하는 동안 그때마다 시대의 변화를 예견하고 대처해오으로써 생존이 가능하였으며,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경제위기를 당하여 소멸하거나 수십년간 쌓아온 공든 탑을 남에게 넘겨야 하는 비운을 겪어야 했다. 그런데

오늘의 경제환경은 지금까지 겪어왔던 어떤 어려움보다도 훨씬 더 험난하고 그 파고가 높다는 진단이 민간경제연구소로부터 나오고 있다.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의한 수요 감소, 시장의 소멸 및 저성장으로 인한 제반요인 등이 매출액 감소를 부채질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김재운 기술산업성장은 '초우량기업도 상시적으로 위기에 노출되어 있다. 제품의 수명이 급격히 단축되고 조기 진부화현상이 가속화되어 선발자의 이익은 급속히 축소되고 있으며, 혁신제품의 경우에도 가격경쟁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초저가시대가 도래하여 모토로라가 15달러 이하 휴대폰을 내놓는가 하면 도요타자동차가 초저가 자동차를 출시하여 현대자동차에 큰 위협이 되고 있으며, 항공업계에서도 중국노선이 10만원대 경쟁시대가 불붙었다'고 전하면서, 초저가화는 혁신을 기반으로 불연속적으로 가격이 급락하는 현상의 현실화라고 설명한다.

더욱이 동종업종끼리의 경쟁이 아니라 업종을 뛰어넘는 경쟁이 본격화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향후 전자회

## 막사발

-시조시인 심성보-  
 <부경대학교수 공학박사>

유행도 사치도 요란도  
 떨어져라 떨어져라  
 내 삶은 소박(素朴)한 촌놈  
 흠에 나서 흠에 산다  
 시름도 상처도 일월(日月)에 묻고  
 하냥 담담하도다.

## <기행문>

### 의사와 금연



대중회 이사  
沈英輔

친구의 집에 동기생 의사들 몇 사람이 모였을 때였다. 닥터·S는 탁자 위에 꺼내놓은 내 담배 껍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자기도 한 대 피워 보고 싶은 마음이 동했던지 한 개피를 뽑아서 다시 한동안 만지작거렸는데 결국은 피우지 않고 껍 속에 도로 넣고 말았다.

『이제는 요놈의 담배 맛을 다 잊어버려 간단 말이야...』 하는 그의 중얼거림은 주위에 있는 동료들을 의식하고 있는 것 같았고, 어딘가 아쉬워하는 그의 모습은 좀 애처롭게까지 보였다. 탄은 이번엔 미국을 여행하면서 보고 놀란 일 중의 하나가 바로 이 미국에 있는 의사들의 금연 경향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국내에 있을 때도 이미 대충 알고있던 일이었지만 현지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고서야 과연 철저함을 실감하게 된 것이다.

도대체 내가 그곳에서 만난 의사들 가운데에서 담배를 피우고있는 사람을 거의 볼 수 없었던 것은 물론이고, 그들의 집을 방문했을 때에도 응접실이나 거실에 담배 재떨이가 없는 것이 보통이어서 내가 담배를 꺼내 피우면 그제 서야 여기저기를 뒤져서 한참만에 찾아내 오거나 아니면 아예 접시 따위의 대용 물을 내어놓는 형편이었으니 말이다.

아무튼 제법 애연가 축에 끼이는 나로서는 금연족의 세계, 그러니까 그곳 의사들의 생활환경 속에서는 단연코 이단자일 수밖에 없었다. 나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한 친구에게 물어보았다.

『자네는 오랜 애연가였는데 지금 보니 아주 짧은 모양

이네 그려, 도대체 어떻게된 셈인가.』 그의 대답은 이러하였다.

『얼마 전 까지만 해도 흉곽외과의사들의 모임에서나 금연이 철저히 지켜져 온 형편이었는데, 이제는 그 풍조가 퍼져서 의사들이 모이는 모든 컨퍼런스나 공식회의 때는 물론 금연이고, 그밖에도 진찰실이나 사무실 기타 각종 공공장소에서도 담배를 피우면 서로 이상한 눈으로 보거나 아니면 아주<나가지서 피워달라>고 주위에서 말을 한다네, 그러니 마음놓고 흡연할 수 있는 곳이란 결국 휴게실 아니면 화장실 뿐 이어서 자연히 흡연의 횟수가 줄어 들고 그러다 보니 이제는 집에 아서도 어쩌다가나 한 두 대 피울까 말까의 습관으로 바뀌었다네.』

말하자면 상당수 의사 애연가들의 금연은 결국 근무처 병원 주변에서의 분위기와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었던 결과인 모양이었다.

물론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또 직접 보고 느끼는 경우도 잦으니까 의사들의 금연을 당연했으리라 납득되지만, 그들이 지난 10~20년 동안 즐겨오던 낯익은 기호를 그렇게 철저히 떨쳐 버리기까지에는 상당한 고통도 따랐을 게 틀림없었다.

나는 짓궂게도 아픈 데를 한번 더 건드려 보았다. 『미국인의 평균수명은 약75세이고 이사의 근로수명(勤勞壽命)은 잘해야 65세쯤 일텐데 그래 미국사람들은 그 나머지 10년의 수명을 알량한 양노원에서 덧없이 지내고 있어서<장수> 운운하는가, 나 같으면 비록 60이하의 생애가 된다 할지라도 낯익은 낙(樂)을 누리는 쪽으로 택하겠네.』

이 말은 물론 강변이었다. 그러나 나는 다만 서구적 이상관(西歐的理想觀)속에 묻혀서 쪽을 못쓰고 있는 동양적 운명관(東洋的運命觀)의 고뇌에다가 침을 한번 주고 싶었던 것이다.

-끝-

沈英輔 서울대의대졸업. 외과병원운영. 가천의대길병원 기획조정실장

사인 히타치가 도요타자동차의 강력한 라이벌이 되고 구글이 NBC의 경쟁자가 되는 것 등이 그 예라고 한다. 이와 같은 국내외 경제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불철주야 준비하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과거의 성공 공식에 도취하여 방만한 경영을 일삼고 있는 기업들도 많다고 언론은 지적한다.

지난6월 8일 삼성경제연구소가 신라호텔에서 주최한 '메디치 21조찬회'에서 행한 중앙일보 정진홍 논설위원의 '징비록(懲懲錄)' 강의는 600여명의 참석자들에게 우리의 경제 환경을 바로 보고 대처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로 들린다.

'징비록'은 서애(西厓) 유성룡이 1592년(선조 25)~1598년. 7년간에 걸친 임진왜란 '정유재란의 원인' 전황 등을 기록한 문서이다. 전쟁의 실상을 겪은 저자가 후일에 있을지도 모를 더 큰 우환을 경고하고자 집필한 것인데 유성룡 서세(逝世:돌아가신 해) 400주년이 되는 2007년이 되어 더 절실히 부각되는 이유를 정 논설위원은 '책은 때로 세월의 무게만큼 읽힌다. 뼈저린 반성과 질책. 그리고 후대에 대한 준엄한 경고가 담긴 서애의 유언과 같은 징비록이 더 무겁게 읽힌 것도 그런 까닭이다. 비단 나라만이 아니다. 기업도, 가정도, 개인도, 징비의 날선 긴장감으로 다시 다잡아야 한다. 휴전선 철책만이 아니라 나와 우리의 삶의 최전선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 그리고 오늘 나와 우리의 징비록을 다시 써야 한다'고 외치면서 강연을 끝맺었다.

따라서 우리국민들, 우리경영자들은 유성룡의 징비록이 주는 교훈을 되새겨 임진왜란 같은 역사적인 비극을, IMF의 경제위기를 당해 수많은 기업들이 추풍낙엽같이 쓰러져갔던 쓰러린 치욕의 지난날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끝>

## 네트워크 보안첨단기술 인터넷 민원 발급망 세계최초로 구축 웹 애플리케이션 방화벽 두각



심기창 대표

이지서티 대표 심기창(대중회 이사 愚夏의 長男)은 데이터를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는 핵심요소 기술인 전자데이터 워크플로우와 보안프로토콜 및 DRM(Digital Right Management)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부 고성능 네트워크 프로세스 기반의 보안관리

웹 애플리케이션 방화벽 개발사업자로 지정 받은 업체이다. "이지서티는 그동안 보유기술을 통해 세계최초로 인터넷 민원발급 서비스를 구축하고 전자정부 기반 조성을 앞당기는데 일익을 담당했다"고 강한 자부심을 내비쳤다. 이지서티 독자기술로 개발한 웹 애플리케이션 방화벽인 '왓세이퍼(WAPP SAFER)'는 기업에서 외부 또는 내부에 서비스되는 웹서비스에 대한 유해 트래픽 침입 및 해킹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서비스되는 웹서버를 보호하는 솔루션이다. 또한 국제 웹 보안 표준기구인 OWASP의 10대 취약점과 국가정보원에서 선정한 8대 취약점을 완벽하게 보완하는 웹 방화벽 제품이다.

심대표는 "왓세이퍼의 GS인증, CC평가계약에 이어 핵심기술 특허 출원으로 본격적인 웹 보안 사업을 시작했다"면서 "앞으로 공공시장을 중심으로 시장인지도와 판매고를 올리기 위해 매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지서티의 개인정보 보호 솔루션 『유프라이버시 세이퍼(Uprivacy Safer)』는 모듈간 서비스가 CBD 기반으로 구성돼 기업 네트워크전반에 걸친 완벽보안을 해준다.

심대표는 직원들과의 대화를 중요시하고 있어 항상 열린 마음으로 직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회사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반영하고 있으며, 투명 경영을 하는 것이 회사를 위하고 직원들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개발을 적극적으로 하는 직원들에게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다.

人事

수화: 연합뉴스 울산지사장
相基: 우리투자증권 구미중앙 지점장
載滿: 상성증권 Coverage 2파트장
재호: 한국조폐공사 개발본부 파트리더
상열: 국민연금관리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장 (강남지사장)
정근: 농수산물유통공사 자금지원팀장
有澤: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포항지부장 2급
상인: 경찰청 충북경찰청 경무과대기
재필: 경남교육청 기획관리국 학교운영지원팀
明求: 한국철도공사 사업개발본부 운영지원팀
달훈: 국세청 재정기획관 과장
재련: 국세청 조사2국 3과 과장
상희: 국세청 東울산세무소
상신: 단국대 서울캠퍼스 평생교육원장
동섭: 문화관광부 문화산업정책팀장
相正: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장
원택: MBC 라디오뉴스팀장
재술: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 흥성지소장
병조: 해양경찰청 인천해경서장
東燮: 중소기업청 서울중소기업청장
成太: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峰奭: 이화여대 동대문병원장

祝

대전 서구 보궐선거 당선
국민중심당 대표 沈大平 國會議員

출생: 충남 공주
약력: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경제학과졸업
1966년 제4회 행정고시합격
경기도 북부출장소장, 의정부시장
대전시장, 부산광역시 기획관리실장
충남도지사, 국무총리실 행정조정실장
대통령 행정수석 비서관
민선자치시대의 충남도지사 (3선)



송금안내

찬조금 또는 종보 회비를 송금하실 분은
아래 구좌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은행 033-031098-04-046
대중회 심명구
농협 084-12-055823
(을지로4가지점) 084-01-179314
대중회 심명구

본 성금이나 회비는 전액 종보발간에 사용하고 있으며
별도회계로 독립 채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송심씨 대종회
전화: (02)2267-7857

\* 5처산소 유사 연락처 \*

Table with 5 columns: 世, 관 직, 소재지, 유사, 전화번호. Lists contact info for various branches.

誠金에 感謝합니다

宗報贊助

- 재현 30,000 곡성 검면
재철 30,000 구로동
재운 50,000 노량진
유택 30,000 용두동
규호 30,000 울산 범서동
봉철 20,000 창원
상남 20,000 부산 사하구
상욱 20,000 석관동
귀동 30,000 완주
相學 500,000 萬重公宗會長
載秀 50,000 석관동
호섭 50,000 염창동
유섭 100,000 중랑웨딩문화원
길섭 50,000 김포 약산
강채 50,000 완도
홍보 30,000 인천
高尺宗會 200,000
원두 50,000 光州 금호동

理事會費

載冕 監事 200,000 2007년 仁川

誤字訂正

종보65호 임원회비50,000원 2007년 의석(金泉)을
종보찬조 50,000 의석으로 訂正함.

靑松沈氏舍人公派宗會

獻誠金

- 信川公 현公 分派宗會 1,000,000
曉窓公 派宗會 5,000,000
水運判官公 金浦郡守公派宗會 1,000,000
判官公 宗會(坡州) 1,000,000
합계8,000,000원

訃告

沈龍燮(前 부평경찰서장)
母親(密陽朴氏)喪 6월 2일 老患으로 別世
嗣子: 龍燮 京燮 震燮
딸: 貞愛

“와인기사” 작위
레드캡투어 심재혁 사장



심재혁(사진) 레드캡투어 사장은 최
근 프랑스 보르도 지역의 와인연합회
서 ‘코망드리 와인 기사’ 작위를 받았다.
이 작위는 보르도 지역의 와인 발전에
기여한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에 수여
됐다. 한국에서는 이희상 동아제분 회장, 유안근 까브드
뱅크 사장 등이 받았다.

仁川宗會 第38次 定期總會

2007년 5월 26일(토), 어제 온 비가 오늘까지 계속되
지 않을까 우려되던 날씨가 여행하기엔 안성맞춤인 구
름이 약간 낀 날씨이다. 아침 일찍 나서 인천시 교육청
앞 주차장으로 약속시간인 6시 30분까지 갔다. 효자 강
수씨가 노부를 모시고 왔고 재안 고문이 장남과 대동하
고 도착하였고 40여명의 종친들이 관광버스로 경북 청
송군 청송읍에 자리한 시조 산소를 향했다. 버스가 출발
하자 승구회장이 택에서 준비해온 떡을 배부하여 아침
시장끼를 채울 수 있었다

좌보 총무가 대략적인 시간 계획표를 설명했고 뒤이
어 승구회장의 인사말이 있었다. 회장인사에서 “인천이
심청 효녀의 후광인가 孝의 도시로 인정받게 된다”며 인
천에서 살게 됨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인천
종친회 중에도 치매에 걸리신 시모를 오래간 간병하고
있는 효부가 있다고 재안 고문의 소개가 있었는데 응무
씨의 부인이시다. 응무씨 부인은 시모의 치매에 대한
효심에서인가 눈물을 글썽이며 종친들에게 인사를 하였
다. 한편 7형제중 4형제가 부부 동반하여 참석하는 열의
를 보여준 상진씨 형제가 있었는데 상진씨는 슬하에 9남
매를 두어 그간 장성하도록 양육에 고생 많았던 그의 부
인을 재안 고문이 소개하자 모두들 박수로 격려를 아끼
지 않았다.

인천종회 고문이자 대중회 감사이신 재면씨가 심씨문
중의 가문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자며 자긍심을 일깨워
주었고, “부모님이 주신 육신을 귀히 여겨 머리털 끝 하
나 손톱 하나까지 함부로 남용하지 말자”는 덕구씨의 도
덕강의 같은 말을 들으면서 단양휴게소를 거쳐 시조묘
역에 들어섰다.

시조묘소 안내표석과 그 주변에 쌓아둔 돌탑들이 눈
길을 끌며 우리를 맞아 주는 듯 했다. 묘소에 가까이 오
자 청송심씨사적비가 서 있다. 사적비 앞에서 기념사진
을 찍으며 조상님들의 사적을 되새겨 보고 좀 더 올라가
니 만세루가 웅장하게 우리를 맞이하며 쉬고 가라고 손
짓을 하는 것 같다.

우리는 신록의 푸른 하늘을 우리러 보며 오르고 또 오
르며 시조 묘소 앞에 당도했다. 묘소가 좌청룡 우백호의



▷ 始祖墓所 參拜

명당자리로 뒤에는 천군만마를 거느리고 앞으로 돌진하
는 모습에 마음이 시원해짐을 느끼는 명소였다. 묘소 앞
에 제수를 진설하고 총무 좌보의 집례에 따라 승구회장이
술잔을 올리고 모두가 체례를 드렸다.

묘소에서 내려와 묘역 나무 그늘 밑에 자리를 깔고 40
여명의 종친들이 둘러 앉아 총회를 열었다. 매년 실시하
고 있는 장학금 수여식이 있었고 전 회장과 감사들에 대
한 공로패 증정이 있었다. 회장인사에 이어 경과보고 재
무보고 감사보고가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며, 곧이어 점
심을 들었다 시조 묘하에서의 종친끼리 드는 식사라 입
맛이 돌고 잔치 분위기다.

우리는 주변관광을 곁들여 심부자 집을 들렀다. 당시
의 재무장관격인 심부자택이다. 심씨 문중에도 이런 부
자가 있었다니... 다음으로 주왕산을 들렀다 대전사 뒷편
에 우뚝선 바위 3개가 인상적이다. 주왕산 계곡에서 흐
르는 시냇물에 발 담그며 휴식을 취하는 맛이란다.

귀가하는 길에 버스내에서 유흥이 있었는데 응무씨가
자진해서 나와 사회를 보며 무료한 시간을 메울 수가 있
었다. 재면 고문이 왕년에 전국노래자랑에서 1등을 한
경력이 있고 콩쿨대회에서도 1등을 한 경력이 있어 연이
어 앙골을 받으며 노래가 이어졌다. 심씨 부인들은 양가
집 규수들이라서 인가 노래 솜씨를 발휘하는데 자제력
을 보여주었다. 인천 종점에 돌아와서 설령탕집에서 식
사를 하고 각기 집으로 향했다. 시조산소에 또 언제가
보려나? 오늘은 잊지 못할 기회였던 것 같다. 이런 기회
를 연출하는데 수고가 많으셨던 회장님과 집행부에 감
사를 드리며...

인천종회 부회장 작가 심명구